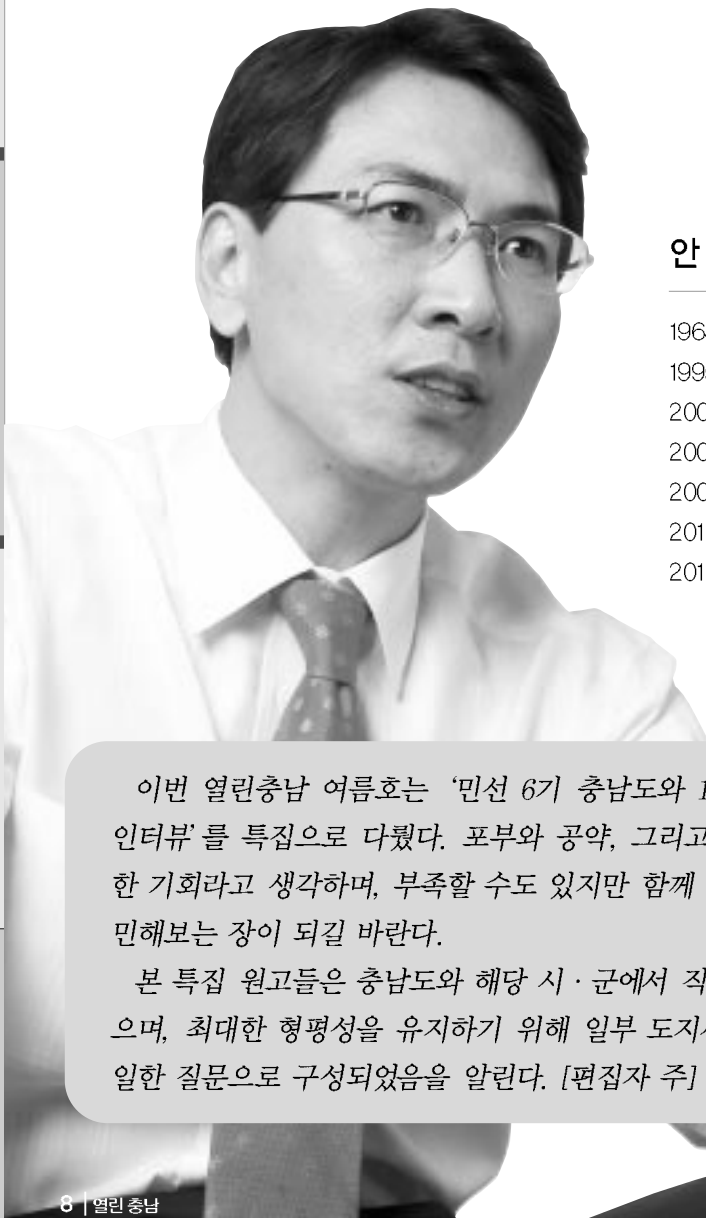


● 특집1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 민선 5기 도정기조 유지하되, 정의(正義) 가치 실현할 터



### 안 희 정 | 충청남도지사

1964년 충남 논산 출생  
1995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2002년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무팀장  
2007년 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장  
2008년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  
2010년 제36대(민선 5기) 충청남도지사  
2014년 제37대(민선 6기) 충청남도지사

이번 열린충남 여름호는 ‘민선 6기 충남도와 15개 시·군을 이끌어갈 단체장과의 인터뷰’를 특집으로 다뤘다. 포부와 공약, 그리고 미래 비전을 내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해보는 장이 되길 바란다.

본 특집 원고들은 충남도와 해당 시·군에서 직접 작성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실었으며,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도지사 질문을 제외한 시·군은 모두 동일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린다. [편집자 주]

### ▲ 당선을 축하한다. 재선 소감은?

2010년에 이어, 2014년 저 안희정을 다시 선택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우려를 씻고 위기를 기회로 달려왔으니 앞으로 4년 더 열심히 하라는 준엄한 도민들의 뜻이라 새기겠다.

지난 민선 5기 동안 3농혁신, 행정혁신, 주민자치, 상생산업단지 등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들을 지방도정에서 도전하고 실천해 왔다. 민선 6기를 통해 이 과제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정부가 대한민국의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는데 돌파구를 만들어 보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도민 여러분께서는 민선 5기 도지사의 연임을 선택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을 선택해 주셨다. 이 선택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좋은 지방정부의 성공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 ▲ 충남도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은?

현안이라면 아무래도 교황 성하의 방문과 내포신도시의 정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교황의 방문과 관련해서는 8월 15일과 17일, 우리 고장을 방문하신다. 우선 15일 오후 5시 쯤 '아시아 젊은이들과의 만남'을 위해 당진 솔피성지를 방문하고, 17일에는 오전 서산 해미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들과의 만남'을 갖고, 오후에는 해미읍성에서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하게 된다.

특히 충남에서의 일정은 해외 언론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알려져 더욱 기대가 높다.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내포신도시 건설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초석을 마련한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발전단계로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새로 입주하는 주거시설이 대폭 늘어나고 상가의 입점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의 발전을 보다 앞당기기 위해 도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신도시 조성공사 등 기본사업에 추진에 충실하면서 민간투자 여건조성 및 투자유치에 매진하고 있다.

### ▲ 3농혁신, 자치분권, 행정혁신 정책이 지난 민선 5기의 핵심 정책이었다. 민선 6기는 무엇인가?

민선 6기에도 민선 5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3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의 3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도록 할 것이다.

## ● 특집1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이 밖에도 민선 5기에 세워졌었던 각종 지방정부의 도전과제들, 충남 농업 및 행정, 주민자치분권 과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 갈 것이고, 또한 환황해의 서해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 또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세워졌던 새로운 충남도의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내는 문화관광광산업에 대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공간적으로 충청남도 종합계획과 서해안비전, 금강비전 등 7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개 분야에 걸쳐 중장기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7개 종합발전계획** :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계획, 내포신도시권·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세종시 주변 발전전략, 서해안비전, 금강비전, 충청남도 도서발전계획

※ **6개 분야 중장기 발전전략** : 산업경제, 농림어업, 문화체육관광, 복지보건교육, 건설교통소방, 환경 에너지

### ▲ 민선 6기 들어 환황해경제권 구상을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서해안은 충남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권 시대를 맞아 서해안을 아시아 교역의 전진기지로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기반 조성 등 체계적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경제발전축 또한 과거 경부축에서 내포·서해안축으로 이동( 박근혜 대통령, 도청 내포신청사 개청식(13. 4. 4)에서 “서해안의 항만과 내륙의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고 충남을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 약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민선 5기에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서해안의 체계적 보존·관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서해안 비전(3대 목표,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서해안 비전」의 3대 목표는 (목표1) 아시아 교역의 전진기지로 구축 - 국제항 물류기반 확충, 국제항로 개설, 항만과 도시 간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이며, (목표2)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기반 조성 - 건강한 연안·하구 복원, 안전한 해양 및 물 관리, 「국제해양 관광벨트」 조성, 문화·레저와의 연계 강화 등 (목표3)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육성 - 풍성한 수산물 생산, 수산업의 선진화 기반 조성, 해양 연관산업 육성 등이다.

앞으로, 「서해안 비전」 실현을 위해 2014년 말까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추진 논리를 개발해 국가의 각종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다.

△ ‘환황해시대’ 서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황해와 인접한 충남도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변하나?

환황해경제권은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연간 교역규모가 6조\$로 세계교역량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 세계최대의 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 환황해경제권 : 중국(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장쑤성,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한국(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일본(규슈)

이에, 우리 도에서는 환황해경제권 시대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거점도시로 내포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내륙과 서해안 균형발전을 이룰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또한, 서해안 중심의 해양물류 및 해양관광 중심의 항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진·평택항을 중부권 대중국 물류의 거점항으로 육성하고, 대산항을 석유화학 지원항과 국제여객항으로 태안항, 대천항, 오천항 등의 연안항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

내륙과의 물류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대산~당진, 당진~천안, 평택~부여,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서해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철도망 구축 등 SOC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로써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구축을 통해 충남이 환황해권시대의 경제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 민선 6기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 도민들에게 한 말씀?

다시 한 번 저를 선택해주신 충남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거 기간 도민에게 드린 약속을 깊이 새기며 민선 6기 충남도정을 모범적으로 잘 이끌어가겠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등 대한민국의 과제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겠다. 또한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의 낡은 정치를 끝내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주셨다. 저에게 두 번째 도지사 임기를 허락해주신 도민 여러분의 큰 뜻을 잊지 않을 것이며, 이는 ‘지방정부를 잘 이끌고 경험을 더 쌓아서, 충청도 선배정치인들의 그 좌절과 비애를 한 번 뛰어넘어 보라’는 도민의 명령이라 들었다.

한 번 더 도민 여러분의 그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